

# 사상체질에 따른 소증 및 병증지표의 임상적 연구 :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장은수 · 김호석 · 이혜정 · 백영화 · 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ang Eun-Su, Kim Ho-Seok, Lee Hae-Jung, Baek Young-Hwa, Lee Si-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fference of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 2. Methods

We recruited 418 subjects in the five oriental hospitals and researched normal symptoms and illness ones through a paper, who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in oriental hospital, who had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ir chief complain after Sasang Constitution medication.

#### 3. Results

- 1) In ordinary symptoms, amount, speed and appetite items of Diges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p < 0.05$ ). Feeling after evacuation of Feces, feeling after urination and yellow color of Urine, amount, feeling after sweat, location in hand/feet of Sweat, and in the others, Tiredness in head, Drinking water, sensitivity, coldness in hand/feet, warmness in belly of Coldness/Warmness a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 2) In pathological symptoms, palpitation, swelling and lack of appetite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p < 0.05$ ).
- 3) In diseases, Hypertension and DM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p < 0.05$ ).

#### 4. Conclusions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items in ordinary, pathological symptoms and disea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asang Medication, Sasang Constitution, Ordinary Symptoms, Pathological Symptoms

• 접수일 2007년 11월 12일; 승인일 2007년 11월 29일  
• 교신저자 : 이시우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Tel : +82-42-868-9555 Fax : +82-42-861-5800  
E-mail : bfree@kiom.re.kr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한 생물학적 체질정보 수집체계 구축]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Grant No. M10643020004-06N4302-00410)

## I. 緒 論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 “明知其人 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라 하여 약을 사용함에 人과 證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 證에 대해서 생리적 증과 병리적 증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는데<sup>1</sup> 생리적 증을 소증이라 하여 병증발현에 있어 소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즉 소증은 병증발현의 차이를 유발하여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출발점이 되므로<sup>3</sup> 소증과 병증 모두 사상체질적 병증관리에 꼭 필요한 요소로 중시하고 있다.

사상체질의 소증은 병증발현에 차이를 유발하여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출발점이 되고<sup>3</sup> 사상인의 생리, 병리 및 병증약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 체질진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에서 태소음양인의 각 체질에 따른 체형, 피부상태, 얼굴색, 수면양태, 땀, 대변, 소변, 심리상태, 및 질병을 앓고 있을 때의 제반증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소증이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sup>4</sup>.

사상체질의 소증과 병증에 관해서는 문진표를 중심으로 김 등<sup>5-7</sup> 이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체질별 소증에 대한 연구<sup>8-10</sup> 외에 대변<sup>11</sup>, 땀<sup>12</sup>, 수면<sup>13-15</sup>, 소화<sup>16</sup>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증 및 병증의 임상연구에 있어 사상체질간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소증 및 병증의 분포 및 체질진단의 요소로서 소증과 병증 항목의 문항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sup>17-19</sup>, 체질별 안면특징 및 체형을 비교한 방식<sup>20,21</sup>, 체질별 음성특징을 정량화한 방법<sup>22,23</sup>, 유전자의 체질별 특성에 대한 연구<sup>24</sup> 등 설문지, 안면, 음성, 유전자, 체형으로 체질을 진단하여 객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소증 및 병증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소증과 병증의 체질별 차이를 살피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 및 소증이 호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질진단에 대해 한 번 더 검증을 거쳤다는 점과, 다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였다는 장점이 있어 정확한 사상체질 진단을 기반으로 소증과 병증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의 기반을 잡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약진에 기반한 사상체질별 증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후향적 증례 연구이다.

### 1. 연구대상

만 13~75세 남녀로 본 연구에 협조 하려는 자 중 사상체질 전문의에 의해 체질을 진단 받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약진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체질진단 기준

- 체질처방을 최소 60첩 이상(동체질 처방) 투여받고 최소 4회 이상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 또는 소증이 일정정도 이상 호전된 사람
- 체질처방을 10첩 이상 60첩 미만(동체질 처방)으로 투여 받은 사람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과 소증이 일정정도 이상 호전된 사람

#### 2) 약진에 의한 대상자 모집기준

- 주증평가 : 대상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명확한 호전이 있거나 중증도의 호전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 소증평가 : 환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각 체질에 해당하는 완실무병 항목의 소증이 호전되거나 그 외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소증에 명확한 호전

이나 중등도의 호전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다.

- 표준소증 항목 : 수면 상태 (입면 곤란 여부, 천면 양상, 중도 각성, 수면 후 피로), 소화 상태(식후 비만, 도포, 탄산, 조잡, 잘 체하는 정도), 식욕(구중화, 구중불화), 발한 상태(발한 정도, 발한 후 느낌, 발한 부위), 구갈 여부, 대변 상태(설사나 변비 등의 성상, 횡수, 용변 후 느낌), 소변 상태(색태와 소변량 등의 성상, 횡수, 용변 후 느낌), 피로감(두통 혹은 두중감 여부, 육체적 피로감, 활력적인 느낌), 정서 상태(우울감, 감정의 급작한 변화, 불안감), 심장 박동 상태(Heart Rate, 심계정층 여부, 흉민 여부)

## 2. 연구방법

2007년 2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혹은 전문가가 있는 전국 4개 대학교 한방병원(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의대학교)과 지역한의원(원광한의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전화 또는 편지로 연락하여 모집하여 표준작업지침(SOP)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최근 6개월 내의 증상을 문진을 통해 작성하였다.

설문은 완실무병의 지표인 소화, 대변, 소변, 땀 4가지 항목 및 식사, 피로, 음수, 수면, 한열

의 일반사항 5가지 합하여 9가지 항목 63문항으로 구성된 소증부분과, 머리, 가슴, 배, 대소변, 기타 등 45가지로 구성된 병증부분, 그리고 5대 질병부분으로 나누어져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에 따른 각 군의 응답 빈도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K' 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의 방법으로 각 체질군 간의 응답 빈도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문항과 체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p < 0.05$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인정하였고 유의한 문항에서 각각의 Chi-square 값을 확인하여 어느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 Ⅲ. 研究結果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자가 168명 여자가 250명이었으며 체질별로는 태음인 191명, 소음인 101명, 소양인 126명이었고 태양인은 없었다. 연령별로는 동의수세보원 광제설의 분포에 따라 16세 이하 17명, 17~32세 이하가 68명, 33~48세까지가 138명, 49~64세 이하가 73명, 65세 이상 122명으로 총 418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asang Constitution. N			Total. N	
	TE	SE	SY		
Gender	Male	80	35	53	168
	Female	111	66	73	250
Age	~16	6	4	7	17
	17~32	27	24	17	68
	33~48	59	36	43	138
	49~64	36	16	21	73
	65~	63	21	38	122
Total	191	101	126	418	

TE : Taeumin, SE : Soeumin, SY : Soyangin

## 2. 소증 지표의 차이

### 1) 음식 및 소화

소화에서는 식욕이 음식에서는 식사량과 식사속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식욕은 “보통”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항진” 항목에서 태음인이 가장 높았고 소음인이 가장 낮았으며 “부진” 항목에서 소음인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식사 양과 관련하여서는 “과식”과 “폭식” 항목에 대해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음인이 가장 적었으며, “소식” 항목에 대해서는 소음인이 가장 많았으며 태음인이 가장 적었다.

식사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항목에 대해 소양인이 가장 많았고, 태음인이 가장 적었으며, “빠름” 항목에 있어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가장 적고, “느림” 항목에 대해서는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다(Table 2).

### 2) 대변

대변에서는 대변 후 느낌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대변 후 느낌에서 “보통” 항목에 대해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으며, 태음인이 가장 적었고, “시원” 항목에서는 소음인이 가장 적게 응답을 하였으며, “후중” 문항에 대해서는 소양인이 가장 적게 호소하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Ordinary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Variable		Sasang Constitution. N (%)			Total. N(%)	p-value	
		TE	SE	SY			
Meal	Amount	moderate	111(57.2)	70(68.6)	82(63.1)	0.000	
		over voracity	36(18.6)	6(5.9)	12(9.2)		
		light	24(12.4)	2(2.0)	10(7.7)		
			23(11.9)	24(23.5)	26(20.0)		
	Speed	moderate	39(20.1)	34(33.3)	48(36.9)	0.002	
		fast	118(60.8)	42(41.2)	61(46.9)		
slow		37(19.1)	26(25.5)	21(16.2)			
Digestion	Appetite	moderate	128(66.7)	72(71.3)	86(67.7)	0.035	
		excessive	51(26.6)	14(13.9)	25(19.7)		
		loss	13(6.8)	15(14.9)	16(12.6)		
Feces	Feeling	moderate	69(36.9)	55(55.6)	63(50.8)	0.007	
		good	67(35.8)	22(22.2)	41(33.1)		
		discomfort	51(27.3)	22(22.2)	20(16.1)		
Urine	Feeling	moderate	79(41.4)	39(38.6)	70(55.1)	0.044	
		good	91(47.6)	53(52.5)	43(33.9)		
		discomfort	21(11.0)	9(8.9)	14(11.0)		
Color	Yellow	no	102(52.6)	60(58.8)	92(70.8)	0.005	
		yes	92(47.4)	42(41.2)	38(29.2)		
Sweat	Amount	moderate	69(36.1)	31(32.3)	56(43.8)	0.000	
		excessive	78(40.8)	13(13.5)	36(28.1)		
		no	16(8.4)	9(9.4)	8(6.3)		
		less	28(14.7)	43(44.8)	28(21.9)		
	Location	Hand/ Feet	no	179(92.3)	85(83.3)	119(91.5)	0.040
			yes	15(7.7)	17(16.7)	11(8.5)	
Feeling	moderate	73(41.2)	43(48.3)	56(50.0)	0.000		
	refresh	65(36.7)	13(14.6)	38(33.9)			
	fatigue	39(22.0)	33(37.1)	18(16.1)			

Table 3. Difference of Other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Variable			Sasang Constitution. N (%)			Total. N(%)	p-value
			TE	SE	SY		
Tire ness	Head	no	152(78.4)	88(86.3)	88(67.7)	328(77.0)	0.003
		yes	42(21.6)	14(13.7)	42(32.3)	98(23.0)	
Water	Temperature	hot	69(42.1)	53(58.2)	49(44.1)	171(46.7)	0.037
		cold	95(57.9)	38(41.8)	62(55.9)	195(53.3)	
Coldness/ Warmness	Sensitivity	moderate	70(36.6)	38(38.0)	47(36.4)	155(36.9)	0.033
		coldness	69(36.1)	50(50.0)	49(38.0)	168(40.0)	
		warmness	52(27.2)	12(12.0)	33(25.6)	97(23.1)	
	Coldness in Hand/Feet	no	135(69.6)	51(50.0)	93(71.5)	279(65.5)	0.001
		yes	59(30.4)	51(50.0)	37(28.5)	147(34.5)	
Warmness in belly	no	176(90.7)	99(97.1)	127(97.7)	402(94.4)	0.011	
	yes	18(9.3)	3(2.9)	3(2.3)	24(5.6)		

3) 소변

소변에서는 소변 후 느낌과 소변 색탁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소변 후 느낌은 “시원” 항목에 응답을 한 소음인이 가장 많았으며, 소양인이 가장 적게 응답을 하였다. 소변 색탁은 중복 체크로 “황색” 항목에 체크한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소양인이 가장 적었으며, 체크하지 않은 소양인이 가장 많았다 (Table 2).

4) 땀

땀에 대해서는 발한 양과 발한 부위, 그리고 발한 후 피로도 항목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발한 양에 대해서는 태음인이 “다한”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음인이 “무한”과 “소한”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다.

발한 후 느낌에는 “상쾌” 항목에서 태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소음인이 가장 낮게 응답하였으며 “피로” 항목에서 소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소양인이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부위에서는 “수족한” 항목에서 소음인이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5) 기타

기타 항목으로는 머리부위의 피로감, 음수습관, 한열호감도, 한열부위항목에서 통계적인 유

의성이 있었다.

피로부위에서 “머리”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적게 응답을 하였으며 소양인이 가장 많았다.

음수에 있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는 “온음”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냉음”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적게 응답을 하였다.

한열에 있어 민감도에서 “외한”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외열” 항목에 가장 적게 응답을 하였다.

부위에 대해서는 “수족냉” 항목에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복온” 항목에는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고 소양인이 가장 적었다 (Table 3).

3. 병증 지표의 차이

병증에 있어서는 “정충”, “부종”, “식욕저하” 항목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정충” 항목은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음인이 가장 적었다.

“부종” 항목은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양인이 가장 적었다.

“식욕저하” 항목은 소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다 (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Variable		Sasang Constitution. N (%)			Total. N(%)	p-value
		TE	SE	SY		
Palpitation	no	155(79.9)	92(90.2)	113(86.9)	360(84.5)	0.044
	yes	39(20.1)	10(9.8)	17(13.1)	66(15.5)	
Swelling	no	137(70.6)	84(82.4)	108(83.1)	329(77.2)	0.012
	yes	57(29.4)	18(17.6)	22(16.9)	97(22.8)	
Lack of appetite	no	173(89.6)	80(78.4)	116(89.2)	369(86.8)	0.016
	yes	20(10.4)	22(21.6)	14(10.8)	56(13.2)	

Table 5. Diseases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Variable		Sasang Constitution. N (%)			Total. N(%)	p-value
		TE	SE	SY		
Hypertension	no	141(72.7)	92(90.2)	111(85.4)	344(80.8)	0.000
	yes	53(27.3)	10(9.8)	19(14.6)	82(19.2)	
DM	no	181(93.3)	101(99.0)	119(91.5)	401(94.1)	0.044
	yes	13(6.7)	1(1.0)	11(8.5)	25(5.9)	

DM : Diabetes Mellitus

#### 4. 질환 지표의 차이

질환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고혈압” 항목은 태음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음인이 가장 적었다.“당뇨” 항목은 소양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소음인이 가장 적었다(Table 5).

### IV. 考 察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 「四象人辨證論」 등에서 체질진단의 근거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제간, 병증약리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체질을 진단하는 기준이 실제 임상에서 비교적 어떠한 체질 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각각의 기준이 다른 체질적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경우 체질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실제 체질진단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네 가지 체질 진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편으로 현재 이런 문제를 객관화 하기위해 체형, 용모연구, 음성연구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증과 병증 등에 대해서는 체질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많았으나 체질진단의 정확성 여부와 단일기관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진단지표로서 항목을 도출해 내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약진에 기반한 사상체질별 증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후향적 증례 연구로 소증과 병증의 체질별 차이를 살피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이 호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질진단에 대해 한 번 더 검증을 거쳤다는 점과 다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자 군을 대상으로 병증과 소증의 체질진단 지표들의 기본항목을 도출해내어 봄은 체질진단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소화부분에 있어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을 소음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태음인이 식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즉 소음인이 소화불량에 잘 걸릴 수 있고, 식사량 또한 가장 적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즉 체질진단에 있어 평소의 식욕 부진의 항목으로는 소음인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이며 항진 항목은 태음인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소화정도에서 정상과 소화불량 역시 소음인이 많은 경향성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1$ ).

식사 양에 있어서는 “과식”과 “폭식”, “소식” 항목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릴 수 있고, 식사 속도와 관련해서도 역시 “빠름” 항목에서 소음인과 태음인을 가릴 수 있는 지표가 되고 “느림”은 소음인만을 진단하는 지표로 태음인이 저장하는 기운이 있어 식사량이 많다는 점과 소음인이 비위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서 식사속도가 느린 점은 소증으로 체질진단을 하는 이론적 근거와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다.

대변은 대변 후 느낌 항목에서 소음인이 “시원”에 가장 적게 응답한 것과 소양인이 “후중”에 가장 적게 응답한 것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굽기는 태음인이 가장 굽고, 소음인이 가늘다고 한 통계적 경향성이 있으나( $P < 0.1$ ) 기존의 박 등<sup>11</sup>의 연구에서는 대변에서 대변 후 느낌부분과 굽기 부분에서 체질별 유의성이 없다고 나와 대조를 이루었다. 소양인의 경우 대변선통이 완실무병의 조건인데, 평소에 배변에 있어서는 후중감이 있다고 한 문항에 가장 적은 응답을 한 점은 평소 소양인이 대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병증이 아닌 소증이라는 전제하에서 후중감이 적은 항목은 소양인을 가려내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대변의 경우 통상 설문 의 형식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정확하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으나, 체질진단을 위한 소증항목으로 완실무병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중요시 되므로 소증으로 체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변항목에서는 소음인이 “시원”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소양인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소양인의 脾大腎小와 소음인의 腎大脾小의 체질에 따른 장부대소의 이론을 적용하자면 소변의 “시원” 항목이 腎大와 腎小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게 되므로 소음인과 소양인을 가르는 좋은 소증지표가 되리라 보인다. 하지만 태양인 그룹이 없어 완실무병 지표로 태양인의 경향성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소변색에 있어서 소양인이 열이 많아 소변이 “황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고, 소변 “황색”은 태음인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어 태음인을 가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땀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태음인이 “다한”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여, “소한” 혹은 “무한”이라고 한 소음인과 땀의 양으로 태음인, 소음인을 가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발한 후 “상쾌”에서는 태음인, 발한 후 “피로” 항목에서는 소음인, 발한 후 “피로” 항목에 소양인이 가장 적게 체크하여, 이로써 땀을 흘린 후 양상으로 체질별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발한 부위에서 “수족한”에 응답한 경우 역시 소음인이 많아, 이 역시 체질진단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기타항목에서 피로 부위는 소양인이 머리의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였고, 소음인이 두부 피로가 적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머리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양태가 火의 성질을 닮아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반영하고 있어 소양인과 소음인을 가르는 소증지표로 활용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음수와 한열 민감도를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한열반응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이 특징적으로 차가운 것을 꺼려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반응을 내고 있다. 즉 따뜻한 물을 마시는 쪽은 소음인이 높고, 찬물을 먹는 쪽 역시 소음인이 낮았으며, 소음인이 추위를 싫어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더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등<sup>27</sup>의 연구에서 소음인 진단지표로 한열을 이용하는 것과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열 지표로는 소음인을 진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게 배가 따뜻하다고 한 체질은 태음인이 많았다.

병증부분에 있어서는 정충의 유무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 정충은 『동의수세보원』에서도 태음인의 중병으로 나타나 있어 병증으로서 체질진단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부종 항목은 태음인과 소양인을 가르는 지표로 나타났는데, 실제 『동의수세보원』에 장부편차로 본다면 腎小한 병리를 가진 소양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임상에서는 태음인이 부종의 병증을 가장 많이 나타내어 문헌과 임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후 부종의 종류를 나누어 체질과의 연관성을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된다. 열격 항목은 소음인이 가장 많았는데, 실제 열격 부분은 태양인을 가르기 위해 넣은 항목이나 실제 태양인이 모집되지 않았다는 것과 열격이 소화기 증상으로 오해되어 소음인이 구토 증상과 더불어 같이 생각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소음인과 태양인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병증 부분은 꽤 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체질별 연관성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항목이 증상위주로 조사된 것에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체질별로 증상이 다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체질별로는 모든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 체질별 상관성이 없다고 나온 항목이 많으며, 증상의 정도, 증상의 양태, 증상의 부위 등에 대한 조사가 더불어 있을 시 체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질병에서 고혈압은 태음인이 많고 소음인이 적어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는 소양인이 많고 소음인이 적어 소음인과 소양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역시 가능성이 있으며, 고지혈증의 경우 태음인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 등<sup>27</sup>의 연구에서도 태음인이 고혈압의 유병율이 가장 높고 나타났으며, 고지혈증 역시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병원 검사소견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최소한의 질병만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보다 많은 질병을 중심으로 체질별 질병경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체질을 정확히 진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느낌을 의사가 표준작업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추후 정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V. 結 論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로 체질을 진단하여 객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병증 소증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기관에서 모집되어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약진에 의해 주증이 호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증과 병증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소화에서 식욕과 식사 양, 식사 속도 항목이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 2) 대변에서 대변 후 느낌 항목이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 3) 소변에서 소변 후 느낌과 소변 선택도의 황색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 4) 땀에서는 발한 양과 발한 후 느낌, 수족 부위발한 항목이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어 진단 지표로 의미가 있었다( $p < 0.05$ ).

5) 기타에서 두부의 피로와 음수, 한열 민감도 및 부위에 대해서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어 진단 지표로 의미가 있었다( $p < 0.05$ ).

6) 병증 문항 중에서 정충과 부중, 식욕저하 항목이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7) 질병 문항 중에서 고혈압, 당뇨 항목이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로 사상체질의 특성을 알아 보고, 또한 그 특성을 활용하여 체질진단을 객관화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병증과 소증에 관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항을 밝혀내어 체질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역시 체질진단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앞으로 병증과 소증의 문항 개발 및 항목설정 등에 관한 추가연구를 기대한다.

## VI. 參考文獻

1. 송일병.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4;6(1):71-79.
2. 함통일, 황민우, 이태규, 김상복,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중풍입원환자의 체질별 소증과 중풍 발생 후 병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 2004;16(3):34-45.
3. 이수경, 송일병. 동의수세보원 태소음양인의 병증론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2):1-26.
4. 김정주, 이영섭, 박성식. 태양소양인과 태음소음인의 수면, 대변, 소변에 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 2005;17(3):82-90.
5. 김중원. 체질진단 분석에 따른 질병 및 증상 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문진표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8(1):337-347.
6. 김영우, 김중원. 체질진단 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문진표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 1999;11(1):119-135.
7. 이영옥, 김중원. 사상체질에 따른 질병 및 증상 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문진표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74-84.
8. 최재영. 태소음양인의 소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 김선민, 송일병,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과 동무유고에서의 소증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 2000;12(2):67-77.
10. 함통일, 황민우, 이태규, 김상복,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중풍입원환자의 체질별 소증과 중풍 발생 후 병증에 관한 임상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 2004;16(3):34-45.
11.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58-68.
12.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대한한의학회지. 2002; 23(4):186-195.
13. Jae-young Choi, Jeong-Rak Choi, Usong-Seop Lee, Seong-sik Park.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Ordinary sleeping Pattern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Kor J, of Oriental Medicine. 2004;25(4): 171-179.
14.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수면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204-215.
15. 최정락,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태음인 수면의 임상적 특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3):18-24.
16.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 112-119.
17.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김중화, 정성일, 이현민, 김중원.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 검사지2(QSCC2)의 연구-문항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21.
18. 김영우, 김중원.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 방안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 215-233.

19.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03-117.
20. 홍석철, 이수경, 이의주, 한기환, 조용진, 최창석, 고병희, 송일병.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101-142.
21. 허만희, 고병희, 송일병. 체간 측정법에 의한 체질판별.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51-66.
22. 고병희, 송일병, 조용진, 최창석, 김종원, 홍석철, 이의주, 이상용, 서정숙.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8(1):101-186.
23. 김달래, 박성식, 권기록. 성문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1). 사상의학회지. 1998;10(1):65-80.
24. 조황성. 사상체질과 유전학. 사상의학회지. 1998;10(1):13-24.
25. 이수현, 한성수, 장은수, 김종열. 사상체질별 한열특성에 대한 임상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19(3):811-814.
26. 이태규, 이수경, 최봉근, 송일병. 일개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만성 질환의 유병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32-45.

[부록]

병증 및 소증 기록지			
구 분	내 용		비 고
피로	정 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가벼움 <input type="checkbox"/> 중간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부위(*)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두 <input type="checkbox"/> 안 <input type="checkbox"/> 사지 <input type="checkbox"/> 몸통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시간(*)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기상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소화	정 도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잘체함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증상(*)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오심(울렁거림) <input type="checkbox"/> 비민(더부룩함) <input type="checkbox"/> 조잡(아프면서도 허기짐) <input type="checkbox"/> 예기(트립이 자주남) <input type="checkbox"/> 탄산(속쓰림 또는 신물이 올라옴) <input type="checkbox"/> 열격(삼킬때 무엇이 목에 걸린 듯하거나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식 욕	보통 <input type="checkbox"/> 항진(식욕이 땅긴다) <input type="checkbox"/> 부진(식욕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식사	양	보통 <input type="checkbox"/> 과식 <input type="checkbox"/> 폭식 <input type="checkbox"/> 소식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규칙성	규칙적 <input type="checkbox"/> 불규칙적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속 도	보통 <input type="checkbox"/> 빨리먹음 <input type="checkbox"/> 천천히먹음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횟 수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대변	습 관	규칙적 <input type="checkbox"/> 불규칙적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양 상	양호 <input type="checkbox"/> 경변 <input type="checkbox"/> 연변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변비설사교대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횟 수	하루1회 <input type="checkbox"/> 2회이하/1주 <input type="checkbox"/> 3-6회/주 <input type="checkbox"/> 2-3회/일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잔변감	보통 <input type="checkbox"/> 시원 <input type="checkbox"/> 후중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속 도	보통 <input type="checkbox"/> 빠르다 <input type="checkbox"/> 느리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굵 기	보통 <input type="checkbox"/> 가늘다 <input type="checkbox"/> 굵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소변	횟 수	4-7회/일 <input type="checkbox"/> 2-3회/일 <input type="checkbox"/> 7-8회/일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야간뇨	없음 <input type="checkbox"/> 2회이하/일 <input type="checkbox"/> 3회이상/일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상쾌도	보통 <input type="checkbox"/> 시원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색탁도(*)	색청(색이 맑다) <input type="checkbox"/> 황색(누렇다) <input type="checkbox"/> 적색(적색이다) <input type="checkbox"/> 탁뇨(탁하다) <input type="checkbox"/> 포말(거품이 많다)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세 기	보통 <input type="checkbox"/> 세다 <input type="checkbox"/> 약하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배뇨통	없음 <input type="checkbox"/> 약간있음 <input type="checkbox"/> 많이있음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병증 및 소증 기록지			
구 분	내 용		비 고
발한	양	보통 <input type="checkbox"/> 다한(땀이 많다) <input type="checkbox"/> 무한(땀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소한(땀이 적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부위(*)	전신 <input type="checkbox"/> 두면(머리와 얼굴) <input type="checkbox"/> 경항(목) <input type="checkbox"/> 흉액(가슴과 겨드랑이) <input type="checkbox"/> 복부 <input type="checkbox"/> 배부(등) <input type="checkbox"/> 수족(손발) <input type="checkbox"/> 서혜부(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종류(*)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도한(잘 때 땀이 난다) <input type="checkbox"/> 자한(낮에(식은땀 등이) 저절로난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피로도	보통 <input type="checkbox"/> 상쾌(땀 난 후 상쾌하다) <input type="checkbox"/> 피로(땀이 나면 피로하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음수	양	보통 <input type="checkbox"/> 다음(많이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소음(적게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한 열	온음(따뜻한 물을 주로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냉음(찬물을 주로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수면	양 상	숙면(잠을 푹 잔다) <input type="checkbox"/> 천면(얕은 잠) <input type="checkbox"/> 불면 <input type="checkbox"/> 기면증(낮에도 비정상적인 졸음이 쏟아진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꿈	보통 <input type="checkbox"/> 다몽(꿈이 많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시 간	4시간이하 <input type="checkbox"/> 4-6시간 <input type="checkbox"/> 6-8시간 <input type="checkbox"/> 8시간이상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한열	민감도	보통 <input type="checkbox"/> 외(畏)한(추위를 잘 탄다) <input type="checkbox"/> 외(畏)열(더위를 잘 탄다)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부위(*)	수족온(손발이 따뜻하다) <input type="checkbox"/> 수족냉(손발이 차다) <input type="checkbox"/> 복온(배가 따뜻하다) <input type="checkbox"/> 복냉(배가 차다) <input type="checkbox"/> 잘모름 <input type="checkbox"/>	불편 <input type="checkbox"/> 괜찮음 <input type="checkbox"/>
<b>다음 중 과거 혹은 현재에 있었던 증상에 체크 합니다.</b>			
(머리) 두통, 현훈(어지러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임), 안삼(눈이 끼끄러움), 충혈(눈이 빨갛게 된다), 난청(소리가 안 들린다), 이명(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통(귀가 아프다), 비연(코가 헐고 콧물이 난다), 설통(혀가 아프다), 구갈(갈증이 난다), 구취(입냄새가 난다), 구고(입이 쓰다), 인후통 (가슴) 심계(심장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정충(가슴이 두근거린다), 흉통(가슴이 아프다), 흉민(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다), 호흡곤란, 단기(호흡이 짧고 급하다), 해수(기침), 객담(가래), 객혈, 천식 (배, 소화) 복통, 복부팽만, 식욕저하, 오심(울렁거림), 구토, 열격(삼킬때 무엇이 목에 걸린 듯하거나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토혈(피를 토한다), 탄산(속쓰림 또는 신물이 올라옴) (대소변) 혈변(대변에 피가 비침), 혈뇨(소변에 피가 비침), (다리) 하지무력, 슬통(무릎통증) (기타) 불안, 우울, 부종(몸이 붓는다), 황달, 홍반(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자반(피부에 자줏빛 반점이 생긴다), 피부건조증, 피부소양(피부가 가렵다), 요통(허리가 아프다)			
<b>다음 질환 중 과거 혹은 현재에 있었던 질환에 체크 합니다.</b>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중풍 <input type="checkbox"/> 간염 <input type="checkbox"/> 기 타 : 현재 약물복용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종류 : )			
비 고 :			